

도립미술관 홍형표 개인전

‘米(美)生을 찬양하다’



작가의 철학·생각 등 담아내

홍형표 작가의 홍형표 ‘米(美)生예찬’전이 9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전통과 현대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통해 현대 문인화로의 진화를 거듭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의 작업은 전통 시서화의 그림과 글을 나누는 분할된 화면을 기반으로 한다. 점묘법이 연상될 법한 도트(dot)를 배경 전체에 펼치고 좌측화면에는 전통적인 도상과 기호를, 우측에는 시서를 배치하는 식이다. 이번 전시에선 작가의 오랜 철학과 생각, 그리고 추억과 회

상을 담아낸다. 이러한 것들은 작품소재로 쓰인 ‘호박’과 ‘밥공기’를 통해 발현된다. 호박시리즈에서 작가는 스스로를 호박에 은유적으로 대입한다. 그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으로 치장하고 꾸민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겉보다 내용의 풍부함과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작품에 빚대어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배고픈 시절 외가댁을 가면 얻어먹을 수 있었던 ‘고봉밥’에 대한 찬양도 작품에 담았다. 밥 한 그릇에 건강을 바라고, 밥 한 그릇에 복을 기원하고, 밥 한 그릇에 희망을 품던 ‘대지의 어머니’와도 같았던 고봉밥의 이미지를 떠올려 밥공기 시리즈를 엮어냈다. /정해은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4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진은 전당의 야경.

‘선택과 집중’... 전당, 조직개편 단행

1국3팀3센터에서 2국3팀3센터로 전환... 공간운영팀 새로 신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생활전통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당은 조직 내 중복업무를 없애고 직제 명칭 변경 및 인적구성의 재배치 등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안정화를 꾀하고자 했다. 조직개편은 용역을 토대로, 기존 1국3팀3센터에서 2국3팀3센터로 운영된다. 사무국과 산하에는 3개의 팀을, 센터기획국 산하에는 전통문화창조·센터한식창의·한지산업지원 등 3개 센터를 뒀다. 아울러 기존 전략기획팀은 정책기획팀으로, 기존 경영지원팀은 경영팀으로 각각 변경됐다. 기존 홍보마케팅팀에서만 해오던 홍보업무는 팀·실별로 분산 운영해 홍보의 다각화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전당 공간 활성화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공간운영팀’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전당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

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따른 것으로 팀은 국내의 관광객 유치에 비롯해 고객 지원 업무, 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전시·공연 등 전통문화 행사 기획, 공방 임대 및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과 관련 ‘생활전통문화의 창의적 환경조성’ 운영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전당은 ‘생활 속 전통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 중 한 주를 ‘한국전통문화 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지역 명인과 작가·창작자·시민·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콘텐츠 행사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체험 중심의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 놀이도 연중 진행된다. 송재명 권한대행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당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전진 배치하고 조직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 업무 효율화를 꾀했다”며 “무엇보다 제3대 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 최소화 와 조직 안정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상반기 첫 공연... ‘시작, 그 설레는 순간’

일쭉~ 좋다!... ‘농부가’ 로 흥겹고 신명나게



전북도립국악원의 상설공연 2018목요국악예술무대가 ‘시작, 그 설레는 순간’으로 상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봄의 생동감을 묘사하는 다양한 곡들로 구성됐다. 관현악단과 창극단이 협연으로 진행되는 공연에선 총 7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여는 무대에선 관현악단의 울림을 고스란히 담은 선율이 비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곡 ‘고구려의 혼’

오늘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서

과 ‘괭이의 숨결’이 차례로 연주된다. 이어 단가나 판소리의 한 대목을 독립시켜 가야금 선율에 얹어 부르는 가야금 명창 ‘사철가, 옥수광방’을,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의 비통한 심정과 유장한 자연 풍광이 묘한 대비를 이뤄 긴박하고 절절한 슬픔을 느끼게 하는 대목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농부들의 소박한 생활과 자부심을 담은 내용으로 흥이 절로 나는 입체창 ‘농부가’와 생활·가야금·해금으로 편성된 실내악으로 비가 오듯 흘러지는 꽃잎을 묘사한 ‘화우’도 무대에 올려진다. 공연은 흥겨운 신민요 ‘봄노래, 내고향 좋은 씨구’로 마무리 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천사 모집... 내달 10일까지

축제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자원활동가로 활약할 ‘소리천사’를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프로그램, 홍보기획, 마케팅사업, 행사운영, 무대운영 등 5개 팀 17개 분야로, 약 280여명의 소리천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사전 교육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발된 소리천사는 축제의 세부 분야에 배치돼 오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공식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소리천사 전원에게는 유니폼과 가방, 할인 혜택이 있는 ID카드와 매뉴얼 북 등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 활동 소리천사에게는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소리천사는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숨은 일꾼들로 축제의 전 분야에 배치 돼 자신의 끼와 열정을 발산하는 존재”라며 “자원봉사자로서의 열정과 의지, 성실성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소리축제 온라인 모집 페이지 (<http://sorifestival.com/angd>)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